



웹진 3호

2015년 7월 9일 발행 / 4.16declaration@gmail.com

인권선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풀뿌리토론] 모의 풀뿌리토론 후기
나민희 (서대문구 416네트워크)
[인권선언 활동 일지] 6월8일~7월2일



인권선언 추진단 릴레이 인터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걸님
노원 시민 김치환님
창현엄마 최순화님

함께 읽을거리

[영상] 4.16인권선언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인권선언을 제안하는 언론 기고 모음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웹진 3호 ::

2015년 7월 9일 화요일 발간

[인권선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 [서대문구 416 네트워크] 모의 풀뿌리토론 후기
- 나민희 (서대문구 416 네트워크)
http://416act.net/decl_achive/4023

:: 인권선언 활동 일지 (6월 8일 ~ 7월 2일)
http://416act.net/decl_achive/3862

[인권선언 추진단 릴레이 인터뷰]

::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걸님
http://416act.net/decl_achive/3859

:: 노원 시민 김치환님
http://416act.net/decl_achive/3863

:: 창현엄마 최순화님
http://416act.net/decl_achive/3979

[함께 읽을거리]

:: 영상>> 4.16 인권선언,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vKD_gwZEU8&feature=youtu.be

:: 인권선언 제안 언론기고 모음

<오마이뉴스> 돌아오지 못하는 딸 위해,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세희아빠 임종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1007

<오마이뉴스> 학생없는 고3 교실, 그 참혹한 피해 현장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5329

<인권오름> 세월호 속 아홉 명과 그들의 가족에게 '인권'이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죠? (최예륜)
<http://www.hr-oreum.net/article.php?id=3053>

<인권오름> 시간을 가질 권리 - 슬픔을 느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걸까 (난다)
<http://www.hr-oreum.net/article.php?id=3055>

<매일노동뉴스> 왜 우리는 지금 인권선언을 해야하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916>

 #웹진

[웹진 3호] 인권선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 416 서대문네트워크 모의 풀뿌리토론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09, 2015

모의 인권선원 간담회 후기

나민희 / 서대문구 416네트워크

나는 작년 4월 16일을 떠올리고 있다. 아직도 끌어올리지 못한 '세월호'.

기다리다-탈출하다, 가라앉다-뜨다, 실종-구조, 유가족-대통령, 진실-거짓, 기억하라-그만하라. 배와 함께 가라앉은 목숨들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비통하고 참담한 인재였다.

우리에게 세월호가 가진 의미는 다 다르다. 거기서 같은꼴을 찾아 오래 헤맸다. 이사를 오고 아기를 길러내는 동안 어느 채널을 통해 같은꼴을 찾을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었다. 이런 마음이 가 닿은 걸까 서대문구에 시민들의 작은 움직임을 접했다. 지하철에서 사진전을 열고, 도로가에 현수막을 내걸고, 젊은 음악인들과 세월호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잊지 않으려는 움직임 말이다. 그런 가운데 대화의 장을 준비 중이다. 그간 세월호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프고 울분이 가시지 않던 우리가, 그 마음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떻게 이 마음을 보듬어 갈 것인지, 그래서 이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존중받고 마땅히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대화의 장이다. 아이디어는 모아졌는데, 정작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감이 안오다 보니 미르님을 모시고 모의 대화의 장을 가졌다.

우리는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질문에 침묵하고 답을 써내려 갔다. 세월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내 기억 속에 있는 말도 안되는 모습들은 무엇이었을까? 함께하거나 바뀌면 좋은 권리들은 무엇이 있을까?

질문에 시작에선 생방송으로 지켜보았던 가라앉고 있던 세월호를 바라보는 그 때의 나로 데려가주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추석귀향길 서울역에서 진상규명을 외치며 서명받는 유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 왔고, 거기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시민들을 눈물로 바라 보았다. 그리고 상상해 본다. 정부가, 그리고 저 시민들이 잠시나마 가족을 잃은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면, 이 참사를 마주하는 모두가 거룩해지지 않을까.

아이들 빈방을 사진으로 마주한 날이 떠오른다. 너무나도 미안하다. 아직 아픔과 슬픔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기억한다. 마르지 않은 눈물로 아이들을 기다리는 이들을 생각한다.



TAG • #웹진, #풀뿌리토론, #후기

[웹진 3호] 인권선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인권선언 활동 일지 (150608_150702)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06, 2015

웹진 3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권선언활동일지(6월)

- ★ 2015.6.8. 웹진 1호 발간

- ★ 2015.6.9. 실행팀회의 (22명중 7명 참석, 천주교인권위)
 - 전체회의 일정 조정
 - 전체회의 연기에 따른 추진계획 조정

- ★ 2015.6.9. 조직팀회의 (10명중 5명 참석, 천주교인권위)
 - 전체회의 일정변경 공지
 - 추진단 모집/웹진/인권실태 보고대회 홍보/6월 20일 촉진자 워크샵 준비/홈페이지 관리/ 언론기고 등 조정

- ★ 2015.6.16. 실행팀 회의
 - 풀뿌리 토론 워크샵 진행안 및 역할 분담
 - 추진단 조직 및 전체회의(7/11) 준비 논의
 - 23일 광화문 농성장 분향소 국민상주단 제안

- ★ 2015.6.17. 풀뿌리토론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015년 6월 17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원 회원 8인이 풀뿌리워크숍을 가졌음

- ★ 2015.6.18.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흥사단회의실, 한국청년연대, KYC, 흥사단 들꽃, 천도교청년회, 서울청년네트워크, 416인권선언추진단 실행

팀)

- 416인권선언운동 소개

-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416인권선언 취지와 목적,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발제한 후 질의응답 및 의견 나눔.

★ 2015.6.16.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 성명

-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성명서에 공동연명

★ 2015.6.20. 풀뿌리 토론 워크숍, 조직팀 회의(전교조 서울지부 강당)

- 약 40여명이 참석한 풀뿌리 토론 워크숍에서는 4개 조(선언/존엄/안전/416)가 나뉘어 토론을 진행함

★ 2015.6.23. 광화문 농성장 국민상주단

-416 추진단 실행팀이 돌아가며 6/23일 국민상주로 활동

★ 2015.6.23. 웹진 2호 발행

★ 2015.6.28. 416연대 발족식

★ 2015.6.29. 원주 간담회

★ 2015.6.30. 광주 간담회

★ 2015.7.1. 실행팀 회의

★ 2015.7.2. 서대문간담회

TAG • #웹진, #활동일지

[웹진 3호] 추진단 인터뷰 7.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걸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06, 2015



1. 자유롭게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로서 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로 회원활동하다, 상근간사로, 지금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로서 그리고 인권운동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16 인권선언에서 실행팀으로 활동하면서 토론

기획에 대한 실무에도 조금 조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열하니 소심한 마음에 부끄러워지네요.^^)

2.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인가요? 참사 이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사건은 무엇인가요?

언론에서 쏟아져나오는 수많은 세월호 관련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의 현상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없었고, 정부 역시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했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 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과 나눠야 할까가 가장 답답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와 나누려고 한 노력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이 나에게도 참 무기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나의 인권운동과의 연결 지점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못한 뒤늦은 반성도 포함되고요.

3.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4년 하반기에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시민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인권의 제도화나 정치화 과정에 대한 가슴 아픈 현실을 접하면서 답답함도 많았지만, 우리의 생활 안에서 인권이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시민들의 생각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중한 의견과 기록 하나 하나가 결국은 모여서 우리들의 입장이 되고, 요구안이 되, 선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는 나를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와 어느 누구도 차별과 배제없이 존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함께 풀어야 할 숙제 였지만, 그것을 미루고 미루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뒤늦은 반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서 시작 된 것이 세월호 인권선언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만나는 풀뿌리 토론이 중요했고, 세월호 인권선언 추진단 그리고 실행팀 안에서 토론기획팀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안주신 활동가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4. 416인권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함께 하자'는 소중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인권선언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4.16 인권선언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항목이 담길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정부, 이윤만 추구는 하는 기업과 자본 등에 대한 시민들이 내리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대해 부끄럽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5.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참조하거나 주의하면 좋을 것이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2014년 제정하고 선포하기로 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민 150명과 30명의 인권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목록과 이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담는 규범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남녀로 구성된 시민위원들이 각각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인권목록을 만들어가며 그것에 대해 토론 하는 등 총 6차례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에서 보수 개신교 차별조장세력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헌장 OUT, 박원순 OUT 등을 외치며 차별, 혐오발언을 쏟아냈고, 급기야 11월 20일 공청회는 이들의 집단적인 방해 행동으로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6차 회의를 통해 완성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스스로 헌장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12월 10일 선포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조례가 아닌 사회적 규범이자 협약인 인권헌장이었지만, 전례없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성실히 참여한 인권헌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헌장의 내용은 고스란히 참여자와 그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험한 것은 토론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의견들에 대한 기록과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된 기록은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알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인권선언의 내용을 알리는 웹사이트가 존재하여 그 곳에 풀뿌리 토론의 각 과정의 기록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있는 공간을 더욱 잘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 얼마전 역대 최대 규모의 퀴어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인권운동을 하면서 '혐오'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듯해요. 세월호 가족들에게 쏟아졌던 혐오를 볼 때의 마음도 남달랐을 듯하고요. 혐오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416인권선언 제정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혐오하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싸워야 하는 것은 참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평소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일상의 시민들과 다름 없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대한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쏟아내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대항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권의 역사가 그러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에서 혐오는 설 땅이 없다고 봅니다. 4.16 인권선언 제정은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소중한 인권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7. 마지막으로,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갈 추진단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풀뿌리 토론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무엇일지 고민합니다. 토론의 환경, 나의 의견을 잘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지?

그것은 토론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토론하다가 목 말라 물이 마시고 싶고, 생각이 만나서 갑자기 자료가 필요해질 수도 있고. 어떤 말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때 마다 조금씩 기다리거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토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추진단의 또 다른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해결 가능하다고 믿고요.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웹진 3호] 추진단 인터뷰 8. 노원 시민 김치환 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06, 2015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뒤늦게 사회 복지사 자격을 얻고 작년 2월부터 노원 나눔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정 결연 사업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 상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도움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416인권선언 운동에 함께 하시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참사 이후 초반에는 개인적으로 집회 참여를 했었어요. 지역에서 25개 단체가 함께하는 '노원공동행동'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작년 9월에 모임 분들과 조금 더 세월호 진상규명에 조직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리미사, 유가족 초청 토론회를 하는 등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416인권선언에 중대한 의미를 두시고 담당해 주시던 분이 건강상의 사유로 활동이 힘들어 지셔서 다음 담당자를 찾기 전까지 대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 처음에 추진단 등록하실 때, 인권선언은 000이다 라는 질문에 "내 삶의 주춧돌"이다 라고 답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에 그 질문을 보고 416인권선언 추진단을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십분 정도 고민을 했었죠. 집을 지을 때 터를 파고 기둥을 받쳐 줄 주춧돌을 놓게 되죠. 튼실한 주춧돌을 잘 놓아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인권이 자리 잡아야 내 삶이 탄탄하게 자리잡고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은 그런 의미에서 제 삶의 주춧돌입니다.

4.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세요.

일주기 이후 이 다음으로 과연 무얼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모할 권리가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4월 25일에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행진하자는 연락이 행사 며칠 전에 급작스럽게 저한테 왔었어요. 처음 담당자로 앞에 나서게 되니 부담이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 신고를 해보았어요. 종각에서 광화문까지는 관례상 행진코스로 허용된 적이 없다고 하는걸 허가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집회 참가자 300명 기준으로 안전요원 30명의 명단을 제출해야 했는데, 갑자기 처리하기엔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도로행진은 1개 차로만 허용 해주고 집회 인원이 300명이 안될 경우는 인도로 행진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대요. 집회할 때에도 쓰레기 시행령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 조항엔 서약을 할 수 없다" 버티긴 하면서도 행여라도 참여율이 저조 할까 속으로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행진을 시작하고 코스 중간에 청량리에서 오는 행진 대열과 합류하면서 천명가까이 되는 순간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일주기 때 차벽에 막혀서 현화를 할 수 없었는데, 모두 무사히 분향소에 와서 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뿌듯했고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가족 분들과 중심 활동가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고두고 느끼는 거지만, 세월호 진실규명 활동으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5. 5월 30일 워크샵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권에 대한 문제를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노원공동행동에
서 함께 해주시는 416인권선언 담당자 분이 지속적으로 단체 회의에서 브리핑을 해 주셔서 낯설지는 않았어
요. 그리고 워크샵 장소에 도착 했을 때부터 진행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워크샵 답구나'하는 걸 느꼈고
많이 배웠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런 아쉬움을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토론을 했던 모듬 구성원들끼리 다시 모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이 모이기는 여건상 힘들테니 모듬
별로 따로 만나서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선언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박 삼일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명상도 하고, 좋은 사람과 함
께 힐링도 하면서 스스로 선언문도 완성시켜 보는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키면 더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그러
면서 투쟁을 길게 이어갈 원동력을 만들어 내는 거죠.

6. 마지막으로 인권선언 추진단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년 416참사 2주기에 맞춰 인권선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인권선언 추진단에 열
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할 것인가가 중요 하다고 봐요.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이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더 널리 알리고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동을 해 나갈 때라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 중
심을 넘어서는 지역과의 만남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존엄과 안전 그리고 416을 주제로 도보순례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현재 추진단에 가족들도 참여 하시고 인권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등 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친 김에 도보 순례단 이름도 제안해 볼까요.
[존엄과 안전 416인권선언 백인 백일 걷기] 어때요? 간단치 않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간단하
고 쉬운 일이면 이런 제안 할 일이 없죠. 추진해 봅시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한가지 더. 광화문 세월호 광장 국민 상주단 참여, 야간 당직 참여, 제가 살고 있는 노원
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4월 16일의 약속 화요 마당 등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사실 표정관리를 해서 그렇지 '오늘도 사람을 만나러 가는구
나' 하고 마음속으로는 춤을 추면서 나선답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 모임 역시 저에게는 그런 공간입니다.
시작과 끝을 춤으로 시작해서 춤으로 마무리 하고 싶어요.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웹진 3호] 추진단 인터뷰 9. 창현엄마 최순화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09, 2015



지난 4월 25일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 공동 추모행사에서 발언하는 세월호 사고 유족 최순화씨(교도.연합뉴스)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5반 창현이 엄마 최순화입니다. 지난 4월 2일에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배상·보상 절차 전면 중단을 요구하면서 유가족들이 삭발식을 했었는데, 그 때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 참여했었어요. 그 후로 머리가 자라면서 점점 삼손처럼 힘이 생긴다고 할까? 제가 그 때 가졌던 생각에 점점 더 당당해지고 있어요.

요즘 저는 미수습자 일인시위와 안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모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아니라 미수습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종자라는 말에는 잃어렸다는 의미, 사라져버린 사람이어서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의미, 또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종자가 아니라 미수습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습한다고, 인양한다고 말만 할뿐 아무런 행동은 하고 있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청운동과 광화문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어요. 2반 다운이가 아직 수습이 되지 않아서 다운엄마가 매일 일인시위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일인시위에 함께 하면서 정부의 빠른 수습을 촉구하고 있어요. 안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자는 모임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은 유가족들이 먼저 모여서 공부하고, 피켓 시위할 구호도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어갈 계획이구요. 추모관, 안전체험 테마공원 등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아요.

2. 인권선언을 함께 하시게 된 과정은?

처음에 4.16참사가 인권의 문제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인권선언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을 때도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궁금했어요. 알면 알아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전에는 당장 내 일이 아니라서 몰랐어요. 기업은 물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언론이 이야기할 때도, 경제를 살리는 정책만 맨날 이야기하는 정부를 볼 때도 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4.16참사를 통해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특히 4.16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시행령 폐기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보상이 얼마가 나올 거라고, 그 돈 받고 그만하라고 정부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지 알게 됐어요. 어떻게든 액수를 키우려고 여행자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까지 포함시키는 정부였고, 그것을 보고 돈 많이 받으니 그만하라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우리 사회가 돈을 우선시하는지, 생명과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 사회인지 알게 됐어요. 4.16참사는 인권의 문제였어요.

3. 참사 이후에 있었던 일 중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항상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돈 이야기를 꺼낼 때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는데, 돈을 주면 모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으면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정부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요.

4.16참사로 안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피해자들에게 그만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참사 후에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셨어요. 그랬던 역할을 이제는 정부가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냥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없으니 그만하라고 저희를 압박하는 거죠. 중소기업연수원에 정부직원이 배상신청받겠다고 와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것도 역시 가족들을 흠여지게 하려는 것이고,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죠. 정부의 이런 행동들 모두 인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4. 인권선언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돈보다 사람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드라마 에도 우리 주변의, 다수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고 재벌들의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광고에도 여유를 갖고 따뜻하게 함께 살자는 이야기보다는 돈이면 다 된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국가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언론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많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돈만 중시하는 풍조를 없애야 해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 정말 동의해요.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데, 지금처럼 적은 임금만 주겠다는 생각은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보다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5. 인권선언 추진단에 모인 사람들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이야기해주세요.

돈만 이야기하면서 돈으로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전 참사들에서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돈만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사람들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돈만 좇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돈만 밝히는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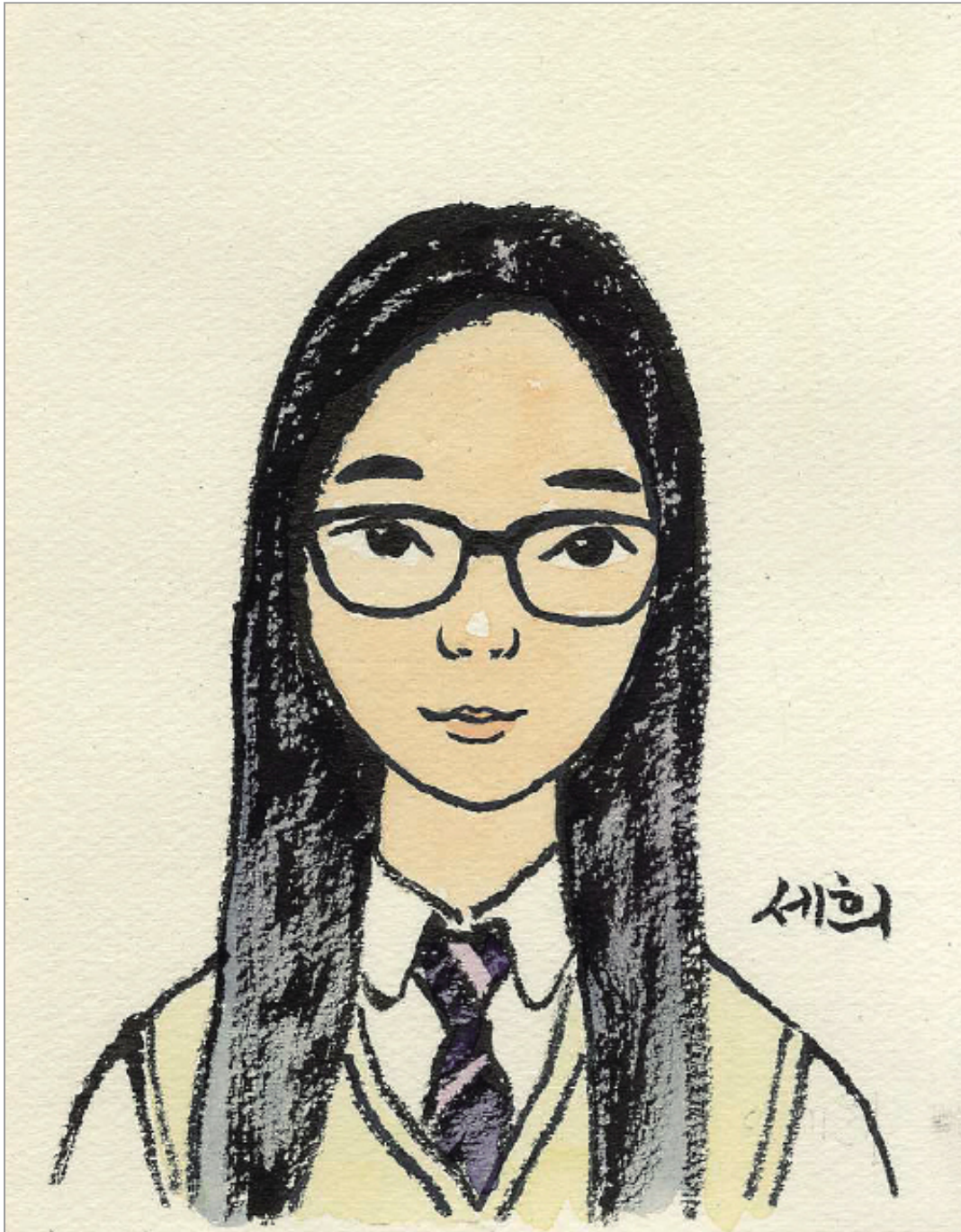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돌아오지 못하는 딸 위해, 권리 찾고 싶습니다

[4.16 인권선언②] 인간존엄의 권리를, 함께 지켜내길 바랍니다

15.06.23 18:01 | 최종 업데이트 15.06.23 20:24 | 4.16연대(416act)



▲ 세희 세희

© <http://416family.org/rememe>

나는 아빠입니다. 권리를 찾고 싶은 아빠입니다. 아빠로서 저는 딸 세희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희가 대학에 들어가면 캠퍼스를 함께 걸어보고 싶었고, 강의도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학교 주변 맛집도 함께 찾아다니고 싶었습니다. 영화도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과 캠핑도 가고 싶어서 3년 전에 레저용 차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4.16참사 이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식사 후 맛있게 커피를 타주던 세희, 아빠의 흰머리를 항상 염색 해주던 세희, 피부가 많이 상했다면서 아빠 얼굴에 팩을 해주던 세희, 손톱이 상했다면서 매니큐어를 발라주던 세희, 그 세희가 이제는 제 옆에 없습니다. 평범했던 일상들을 빼앗기면서 나의 권리도 빼앗겼습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은 참사 이후 사라지고 매일 낯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떠돈 끝에 6백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국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304명의 고귀한 희생과 온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린아이도 당연한 일이라 여깁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하에 만들어졌음에도 헌법체계를 뒤흔든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의 제정을 방해했습니다. 그나마 만들어진 반쪽짜리 특별법도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허락되는 길, 왜 유족에게는...

가족들이 정부와 청와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는 법은 어찌된 일인지 권력자들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가족들에게는 엄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심지어 관광을 위해 찾아온 외국인이라면 당연하게 허락되는 길이, 유독 유가족들에게만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유가족을 국민 취급도 안 하는 태도입니다. 아니 국민이 아닌 것을 넘어서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416참사 당일 배안에 있는 이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그들은 구조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참사 당일 가장 큰 인권침해가 먼저 간 304명에게 가해진 겁니다.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정부를 상대로 목 놓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거짓말만 했습니다. 구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조를 막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진상규명은 국가의 의무인데 자꾸 축소은폐하려고만 합니다.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공권력을 남용

하며 과잉진압을 하고 정부와 여당의 심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올바른 시위와 집회를 불법집회와 불법점거로 매도했으며 유가족들보다 수 백 배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교통을 마비시키고는 그 책임을 시위자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하늘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내 자식이 왜 주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알고 싶은 것이 최인지, 유가족과 국민의 진실구명요구가 그렇게 부당한 건지, 정부와 여당이 완강하게 진실구명을 막고 은폐하는 것이 부당한지, 하늘이 분명하게 판가름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책임을 물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권리 깨닫고 되찾는 운동 시작합니다



▲ 세희아빠 임준호씨 세희아빠 임준호씨

© <http://www.rights.or.kr/5>

저는 여전히 세희 아버지이지만 4.16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희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빼앗긴 우리의 권리, 사람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는 찾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그러나 잊고 살았던 권리, 때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느라 포기했던 권리, 1년이 지난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되찾고자 합니다.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416 인권선언을 국민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탐욕과 위선에 찌들어 사리분별조차 잊은 지 오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정부와 정치권을 근본부터 고치는 일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되찾으려 하는 운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세회를 잃고서야 깨달은 인간존엄의 권리를, 국민들은 더 큰 것을 잃기 전에 함께 깨닫고 함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자각하고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못난 아버지의 뼈아픈 깨달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 | 최유진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임종호님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고 유세희양의 아버지입니다.

© 2016 OhmyNews

OhmyNews

인쇄 - 오마이뉴스

기사 프린트 페이지

학생 없는 고3 교실, 그 참혹한 피해 현장

[4.16 인권선언③] 이제 '인권'할 시간입니다

15.07.09 11:26최종 업데이트 15.07.09 11:26 박래군(416act)



▲ 416기억순례에 참가한 시민들이 단원고 명예3학년 학생들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 손지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실, 안산 단원고등학교 명예 3학년 교실에 가보셨나요?

교실에 학생들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선생님이 쓰던 탁자도 있는데 칠판엔 보고 싶은 이름들이 가득한, 세상의 마지막인 줄 몰랐던 이들이 맑게 웃으며 때로는 장난치며 찍은 선생님과 아이들의 사진이 있는 그런 곳.

책상 위의 국화꽃, 그리고 과자와 음료수, 엄마 아빠와 형제자매들 그리고 친구들이 남긴 메모들이 책상 가득 있는 그런 교실. 학습 참고서가 빈자리에 놓여 있기도 하고, '3선 슬리퍼'와 체육복도 놓여 있는 그런 교실에 뜨겁지 않은 여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더군요, 내가 찾아갔던 지난 주말의 그 교실에는.

'살아서 돌아오기'란 숙제도, '살아서 만나자'는 다짐도 이미 색이 바래졌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이가 있는 그 교실을 엄마 아빠들은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먹을거리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연자실 앉았다가 눈물 흘리고 일어서고는 하는, 그런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얼굴과 이름을 알아버린 아이들, 엄마 아빠들의 사진이 있는 그곳은 가장 참혹한 인권 피해 현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4개의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살아온 이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10개 반에서 살아온 75명의 학생들을 4개 반으로 재편해서 공부하게 하는 그곳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던 친구를 늘 생각하며 매일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데, 17살, 18살 그 나이로 그걸 견뎌야 하는데....

세상은 잔인하게 그들의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병원을 8군데, 10군데나 다니며 치료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순간 생의 경계를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건 아닐까,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요. 평생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하는 학생들인데, 인간적인 모욕까지 견디도록 하는 건 참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이지요.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있고 20여 일이 지난 뒤인 2014년 5월 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청와대 인근의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자리가 생각납니다. 땀방이 내리쬐는 그곳에 생존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을 대신해서 학부모 대표가 말하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만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게 죄송할 일인가요? 그 뒤 진도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는 아이들의 시신을 찾아 올라가는 유가족에게 남은 이들이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아이의 시신을 찾은 부모들은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은 "유가족이 되게 해주세요"하고 울부짖었고, 그 모습들은 교실들에서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 교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들이 금방이라도 나타나 책상에 앉아 공부도 하고, 장난도 칠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다고 탁자를 두드릴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 책상과 의자의 주인공들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세월호 인권피해자들



▲ 세계노동절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벌이다가 경찰 차벽에 막힌 채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 행동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세월호 참사의 인권피해자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희생된 이들과 그 가족과 그 주변의 친인척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한 학생과 선생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에서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물질을 해야 했던 잠수사들이 있고, 그중에는 암 투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해경에 의해 과실치사죄로 법정에 서야 하는 기막힌 일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생존한 승객 중에는 살려내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민들은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또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 주변과 주변의 사람들. 아픔에 공감하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에 분노했던 많은 시민들도 인권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서 인간적인 공감과 유대를 확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면서 끊임없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덮으려는 정치인들과 관련 책임자들과 언론들과 그들의 거짓 선동에 놀아난 일부의 시민들을 빼고는 우리 모두는 하나였고, 우리 모두는 나름의 이유로 인권피해자였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이 발표되고, 엉터리 배보상 방침을 발표하여 세월호 참사를 덮으려 했던 정부와 대통령에 맞서서 싸울 때 경찰들은 차벽으로 추모의 길을 막았고, 청와대 가는 길을 물대포와 캡사이신으로 막아섰습니다.

명박산성에 이은 근해차벽이란 인권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벽 앞에서 우리는 같이 울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4월 16일 이후 우리는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끝까지 밝히

겠다고 약속했고,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잡은 손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공권력과 언론, 정부의 인권침해는 더해만 갔습니다.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마저 훼손하면서까지,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정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까지 호령하는 중세봉건국가의 여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억지 눈물을 짓던 그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못하도록 틀어막겠다는 오기에 절은 대통령을 보았고, 그의 신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인권'을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존엄함을 추구하는 인권이 현실세계에서는 얼마나 쉽게 무시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도 받아야 하고, 위로 받아야 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원,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럴 권리를 가진 주체들이 현실에서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인권 침해의 다양한 양상들



▲ **국민서명 전달 가로막힌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호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398,727 명의 국민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려하자, 경찰이 이를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탄압으로 대신하려 든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여지없이 반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세월호 참사의 모든 원인과 배경, 전개과정은 마치 히틀러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사는 국가와 사회가 인권을 얼마나 철저히 무시하여 왔던가를 보여주고 있습

니다. 그 안에 탄 승객들은 생명권과 안전권을 무시당했고, 국가로부터 재난상황에서 구조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침몰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해상사고로 그쳤을 일을 대형 참사로 발전시킨 이면에는 이윤추구정책이 낳은 무분별한 아전의 외주화 정책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인해 심각한 고통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당연한 진실을 알려야 함에도 모든 것에서 반대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서자 공권력을 동원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고, 이제는 피해자 가족들의 사단법인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권의 눈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떠했습니까.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연대할 권리는 종종 공권력에 가로 막혔습니다. 국민을 죽인 정부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고 구속되고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알 권리는 철저히 침해당했습니다. 그중에는 대통령의 7시간과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알 권리는 가볍게 무시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전국에서 6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여 청원한 것도 국회에 의해서 무시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의 뒤에는 청와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 불평등의 심화인 반인권 정책의 실현과정이 결국 세월호 참사의 배경을 이루고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그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기업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인권의 철저한 무시와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권'할 때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제는 4월 16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너른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였고, 전국에서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는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가만히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행동하기 시작한 우리는 이미 인권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권을 어렵다고 느끼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모든 걸 보장해 줄 수 없지만, 인권으로 우리를 지키는 무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단순한 사고가 참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리하여 모두가 존엄한 연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권을 말해야 하고, 토론해야 하고, 의지를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은 거기로부터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울었다면, 그래서 약속하고 다짐을 했다면, 그래서 옆 사람의 손을 잡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곁을 지켰다면 당신을 벌써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 그 꿈을 담아서 인권선언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어느 전문가가 아니라 가장 절실하게 인권침해를 느꼈고, 부당하게 생각했고, 심지어 행동하기까지 한 우리가 못 할 일은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자신의 처지를 인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풀뿌리 네트워크로부터 단체와 기업과 조합과 학교에서 지역에서 우리는 인권을 말해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416연대가 추진하는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제정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꿈을 모아주십시오. "생명, 안전, 진실, 치유, 구조, 회복의 권리들"을 담아내는 이 운동에 유가족과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실천, 인권선언 제정운동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권침해에 침묵하지 말고, 인권을 경시하는 모든 정책과 법에 저항하며, 인권을 경멸하는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고, 안전사회를 주창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배우고 인권을 고민하고, 인권을 실천하고자 할 때 세상은 바뀌고,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는 그 고리는 끊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교실에서 말없이 눈물짓는 유가족들과 그 어린 친구들이 외롭지 않게, 그들이 힘을 잃지 않게, 세월호에서 죽어간 이들의 생명이 헛되지 않게 우리는 인권선언 제정운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이제 "인권" 할 시간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원하는
우리,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함께 쓰기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풀뿌리토론의 시작을 알립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

일시 | 2015년 7월 11일(토) 오후 1시
장소 | 수운회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주최 | 4.16연대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등록해주세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

추진단 활동이 어렵지만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416declaration@gmail.com 으로 신청 메일(이름, 연락처)을 보내주세요.

4.16연대 416act.net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약속국민연대(예금주)

▲ 4.16 인권선언 추진단 전체회의가 7월 11일 수운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 4.16연대

○ 편집 | 곽우신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인권중심 사람 소장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입니다.

© 2016 OhmyNews

OhmyNews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속 아홉 명과 그들의 가족에게 ‘인권’이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죠?

최예륜

트윗

좋아요 < 26

그토록 무거운 배가 물 위에 떠 있다는 것은 언제든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목숨이 위태로운 사고의 위험이란 모든 생명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어 살아간다. 스스로를 지키는 나, 피붙이를 지키는 가족, 제도로써 서로를 지키자고 약속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본 적 없는 어떤 공동체 무엇. 세월호 참사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질문했다. 적어도 국가는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가족이 아니고서는, 어떤 울타리가 남을까.

아직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죽음

망자에 대한 최선이자 최소한의 애도의 표현인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인간이 왜 사회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죽음, 거대한 폭력에 의해 시신조차 훼손된 무참한 죽음, 애도할 기회와 애도 받을 권리조차 얻지 못한 죽음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지만 더 이상 그런 죽음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스스로 배에 올라타 여행과 새로운 삶에 들떠있던 사람들이, 가라앉은 지 449일(7.8)이 된 배 안에 아직도 갇혀 있는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미수습자 가족들의 고통은 왜 이토록 길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무엇이 이들을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서있지 못하도록 하는지 밝혀야 한다.

구조-수색 과정에 정부는 없었다. 아니, 방해세력으로서 존재했다. 구조-수색 초기, 해경은 언더의 바지선을 기다리느라 30시간을 허비했고, 자신들과 유착된 기업에 특혜를 주느라 보다 나은 (그리고 잠수사들에게 안전한) 수색작업을 만들고 지원하는 책임을 외면했다. 정부는 범대본을 통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을 듣는 시늉을 했지만 뒷짐 진 채였다. 수색장기화의 부담은 오롯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떠넘겨졌다.



▲ 지난 1월, 실종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을 하는 세월호 가족들.

미수습자 가족들의 시간

진도체육관 스크린에서 재생되던 사고해역 화면은 마치 정지화면 같았지만 진도 앞바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자리는 온갖 비리, 모순, 희생자들의 고통과 절규가 얽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진도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의 시간이 그러했다. 슬픔과 기다림의 잔잔한 물결 같지만 실상은 지옥과 같은 일상의 연속이었다. 힘겹게 눈을 떠 밥술을 뜨는 등 마는 등 멀미약을 챙겨먹고 팽목항으로 한시간반, 배를 타고 사고해역으로 한시간반. 바지선에 올라 민간잠수사들을 붙들고, 어디어디에 내 딸이 있습니다, 우리 애를 이곳에서 봤다는 애가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꼭 수색해주세요……. 혹은 아무 말 못하고 바다만 바라 보던.

새로 올라온 시신이 혹시나 내 가족일까 싶어 하나하나 확인하고, 시신을 안고 떠나는 가족들에게 도리어 축하인사를 건네고, 보내곤 쓰러져 울던. 범대본 회의에 가서 해경 간부의 오라가락하는 무능한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따지고. 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육관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지만 희망은 점점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희생자 가족들이 경험한 일이지만 그런 일상이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너무 여러 날 반복되었다.

수색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정부

정부는 가족들이 선내 수색활동 종료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수색작업을 매듭짓고자 했다. 잠수사들의 잇따른 사고, 민간업체의 철수의사표시와 반복, 이 과정에서 정부는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채 그 부담을 온전히 미수습자 가족들이 떠안도록 내몰았다. 정부는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가족들의 수색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11월 11일 가족들의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해수부는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곧바로 범대본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미 여름부터 수색종료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정부는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2014년 5월에 이미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양을 차일피일 미뤘다. 비용문제, 위험성 등을 내세운 여론 공세를 퍼나가며 인양 문제를 정치적으로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파괴된 일상을 수습할 여력도 없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일인시위 등을 이어가며 인양을 눈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권한과 위상을 대폭 축소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내놓으며 유가족들을 돈으로 모욕하는 한편, 못 이기는 척 인양 발표를 했다.

현재 인양참여 업체 선정과정 단계이며 예상되는 인양 완료시기는 내년 9월이라고 한다. 가족들 중 일부는 인양작업이 시작되면 진도에 다시 내려가겠다고 한다. 고통의 시간은 길어져만 간다. 구조실패-수색 부실-인양 미루기, 총체적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 대응이 이토록 긴 시간 미수습자 가족을 고통으로 내몬 것이다.

빼앗긴 권리, 그래서 말하기 시작해야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들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권리의 말을 꺼내기도 쉽지가 않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몇 가지 단초가 있다. 상상하기 힘든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고통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 한사람까지 찾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정부의 정치적 저울질이 고통의 무게를 차별하고 피해자들간의 벽을 만들어냈다는 점,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강화하며 없는 갈등도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사의 피해자 각자가 고립돼 세상 그 누구도 몰라줄 아픔의 주인공으로만 남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삼켜버린 삼백사명 중 아홉명을 아직까지 놔주지 않고 있는 세월호의 인양과정을 낱낱이 지켜보고 기록해야 한다. 세월호를 조속하고 온전히 인양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기나긴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 스웨덴 바사박물관은 1628년 침몰한 전함 바사호를 333년만인 1961년에 인양해 전시해 놓은 곳이라고 한다. 그곳에는 침몰 원인까지 상세하게 전시되었다고 하는데 바사호의 침몰 원인은 '북방의 사자왕' 구스타브 2세가 30년 전쟁 시기 발트 해를 독점하겠다는 야욕으로 애초 설계와 다르게 함포 배열을 복층구조로 변경, 대포 수를 두 배로 늘리고 과도한 장식을 넣어 만들어 무게중심이 올라가 복원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대목에서 소름이 끼친다. 수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실, 탐욕이 재앙을 낳는다는 점을 우리는 세월호를 인양해 두고두고 기억하고 곱씹어야 한다. 가족을 영영 못 찾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진실을 알 권리, 고통을 치유 받을 권리조차 유보하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의 손을 잡고 진실을 향한 싸움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 아홉 명의 미수습자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호 그 끔찍한 배 안에 아직까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순식간에 깡그리 사라져버린 권리의 주체들이 눈을 감지 못한 채 바다 속에 있다. 조은화, 허다운, 박영인, 남현철,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 이 아홉 명이 아직 세월호 속에 있다. 죽은 이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 단 하나 남은 권리가 있다면 땅 위로 올라와 치러질 장례일 테다. 그것이 남은 가족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최대의, 최소한의 위안이 될 것이다.

덧붙임	최예륜 님은 416인권실태조사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이웃에게 들은 416 세월호 참사 속 인간의 권리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관련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6연대 • 기다림과 진실의 버스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시간을 가질 권리

슬픔을 느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걸까

난다

트윗

좋아요 1

#1.
아주 긴 하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는 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움직임을 감지하는 조명이 어둡던 공간을 잠시 밝혀준다.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자고 싶지만 세수는 하고 자야지. 대충 씻고 잠이 든다. 아침 해가 언제 기지개를 켜는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또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일터로, 학교로. 거리로 나서는 아침시간엔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환승입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전철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규칙적이다. 빠르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살짝 멈춰 앞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어느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 같다. 비슷한 복장, 비슷한 걸음걸이, 비슷한 속도,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선까지, 사람들은 비슷하게 바쁘다.

#2.
“선생님, 시간을 어떻게 아끼셔야 하는지는 잘 아시겠습니까! 예컨대 일을 더 빨리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생략하세요. 지금까지 손님 한 명당 30분 걸렸다면 이제 15분으로 줄이세요. 시간 낭비를 가져오는 잡담은 피하세요. (중략) 무엇보다 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소위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충고하는데, 잘 맞는 커다란 시계를 하나 이발소에 걸어 놓으세요. 견습생이 일을 잘 하고 있나 감시할 수 있게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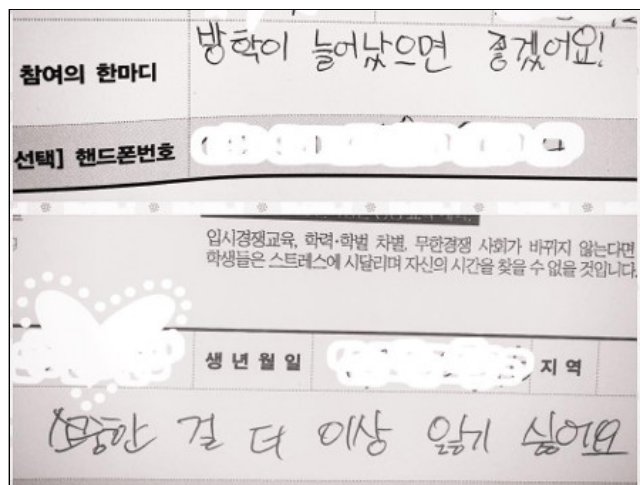
- 미하엘 엔테, <모모> 중에서

미하엘 엔테의 소설 <모모>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면성실’이란 말이 떠올랐다. 근면성실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였지만 나 자신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설교는 늘 익숙했다.

#3.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신문들은 날이면 날마다 시간 절약 효과가 있는 새로운 장치의 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우수함을 찬양했다. (중략) 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중략) 하지만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 미하엘엔테, <모모> 중에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런 것들까지 신경 써야 해?” 아마도 많은 사건사고들이 이런 생각들 속에서 잊혔을 것이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기억 또한 무수히 많은 순간들을 지나치며, 결국 선택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삶이 팍팍할수록, 자유시간 따위는 사치로 여겨질수록, 내 삶과 가까운 문제들이 오히려 삶에서 멀어지곤 한다. 피곤한 일상이 반복될수록 자유롭게 생각하고 성찰하고 표현하는 일도 그저 피곤해질 뿐이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 궁급해 할 시간이 없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와 힘을 박탈하는 사회다.



▲ '학습시간 줄이기' 서명운동 참여자들이 적어준 한마디

#4.

지난 6월 29일,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81.3%가 피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피곤을 느끼는 사람의 57.0%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반면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의 74.3%는 항상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 걸까?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생들은 평균 6시간 49분, 중학생들은 평균 8시간 41분, 고등학생들은 평균 10시간 13분의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이다.

요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는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캠페인을 통해 만난 시민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학생들도 피곤한 건 알겠는데, 대안은 뭐가요? 학교를 더 일찍 마친다 해도 학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혼자 지낼 수 없으니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왜 학생들은 갈 곳이 없을까? 학원에 가는 것만이 대안일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풀어볼 수 있겠지만,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일하는 시간이 어떤지는 주목해볼만하다.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길고 학교 또는 학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과 OECD 국가에서 1~2위를 거루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5.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달 동안은 모두에게 슬퍼하라고 하더니 그 몇 달이 지나자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 모두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있다. 애도할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필 시간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듯했다. 슬픔의 기간을 정하는 건 누구일까. 슬픔을 느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걸까.

우리의 시간을 되찾자. 시간을 찾자는 것은 단지 '쉬는 시간'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떠나라고 부추기며 결과적으로는 휴식 시간을 보낸 후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갖자는 것은 한 개인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알찬(설 틈 없이 꽉 찬) 계획표를 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루 8시간 노동할 권리를 이야기할 때에도 눈치를 봐야만 하는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다. 장시간 학습과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이다. 쉽과 여유마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시간을 가질 권리는 나의 일상을 노래할 권리이다. 더 이상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말할 권리이다. 우리 시간에 대한 권리를 찾자.

덧붙임	난다 님은 인권교육 '온다' 활동가입니다.
관련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속 아홉 명과 그들의 가족에게 '인권'이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죠?•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이웃에게 들은 416 세월호 참사 속 인간의 권리
관련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6연대• 416인권선언

☰ 홈 > 뉴스 > 칼럼 | 비정규직 활동가의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

왜 우리는 지금 인권선언을 해야 하나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5년 07월 09일 (목)

김혜진 ✉ work21@jinbo.net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흐를 줄은 몰랐다. 세월호가 잠겨 가는 모습을 보며, 승객들이 하나둘씩 주검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그냥 흐르던 눈물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눈물은 분노가 됐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넘은 지금도 이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 애타게 외치는 이들을 왜 해경은 외면했는지, 왜 조타실에 들어가고서도 나오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는지, 왜 선장을 재운 해경집의 CCTV는 꺼졌는지, 왜 항적도가 유실됐는지, 진실을 알려 달라는 이들에게 왜 경찰은 최루액이 담긴 물대포를 쏘는지, 죽음의 원인을 알려 달라며 애원하는 유가족들에게 왜 돈을 흔들며 조롱했는지, 왜 ‘쓰레기 시행령’을 만들어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지, 심지어 잘못된 관리로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해 재판을 받는 이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특채가 됐는지, 이 모든 일에 대해 분노했다.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분노’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을 느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1년간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따스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합리화됐다. 경찰도, 언론도, 법원도, 그리고 정부도 모두 공권력의 이름을 빌려 이런 일들을 합리화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분노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여론의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발언이 넘치는데도 다수가 침묵했다. 유가족과 함께하는 이들은 종북, 때로는 폭력세력으로 매도당했다. 진정으로 추모하고 애도했던 이들은 그래서 가슴에 멍이 들고 상처를 입었다. 사회에 대한 희망을 잃고 무기력해지기도 했다.

많은 이들은 이런 현실을 표현하는 명징한 언어를 찾고자 했다. 왜 이토록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이 사회가 이토록 잔인한지 말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었다.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불법개조와 과적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종북의 망령을 아무 곳이나 꺼내 드는 정부가 지금의 정부였다.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에 호감을 느끼고, "함께 살자"는 구호에는 "뭘 모르는 소리"라고 쉽게 답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생명의 존엄과 안전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은 새로운 ‘권리’의 바

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어야 한다. 법과 언론과 제도와 정부가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비웃고 가로막을 때,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힘은 법과 제도와 권력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참사를 ‘인권이 침해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인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그 진실은 한 사건의 진실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16연대는 ‘4·16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운동을 시작한다. 7월11일 수운회관에 모여 첫 번째 토론을 하고, 그 이후 전국 여러 시민들과 함께 각지에서 ‘우리가 침해당한 권리’는 무엇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토론할 것이다.

그 자리를 통해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모든 시민과 노동자는 안전할 권리가 있고,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가 있으며, 혐오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연대할 권리가 있음을 말할 것이다.

그래야 돈에 떠밀려 죽음의 위협에 놓이는 일을 멈출 수 있다.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모욕을 가하는 사회적인 악행도 중단시킬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시민들의 참여와 알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도 만들 수 있다. 감정의 공유와 연대로 서로가 풍성해지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안전할 권리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인권을 선언하고 그 가치 위에서 삶과 사회를 새롭게 세우고자 할 때,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 싸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4·16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운동’에 함께하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work21@jinbo.net)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